

고령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한일 국제 Roundtable

일시: 2011년 11월 5일 토요일 09:30-13:00

장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소재 The Heritage 시니어타운 내
“Heritage Hall”

주최: 한국노년학연구회, 늘푸른의료재단

후원: 보바스기념병원, 전라남도 곡성군청

참석자

진행자: 윤가현 교수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편성자: 임병우 교수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표자: 호즈미 히사시 (President of Friends of IFA Japan)

발표자: 오가와 타케오 (구마모토학원대학 교수)

토론자(지정):

사회존중 엄기욱 (군산대학교 교수)

교통 정연식 (한국교통연구원)

안전/시설 조영태 (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일자리/자원봉사 조추용 (현도꽃동네사회복지대학교 교수)

정보제공 박영란 (강남대학교 교수)

보건/지역복지 조유향 (초당대학교 교수)

주택 임경수 (성결대학교 교수)

토론자(자유):

사회존중 조미경 (광주대학교 교수)

교통 전해왕 (대원과학대학교 교수)

안전/시설 이원진 (한세대학교 교수)

김병한 (동명노인복지센터)

일자리/자원봉사 민진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최강수 (곡성군청 부군수)

정보제공 이상철 (서울복지재단)

보건/지역복지 박명도 (곡성군보건의료원 원장)

권혜란 (광주보건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1>

아키타시(秋田市)의 고령친화도시건설의 진행과 현황

穂積 恒 (호즈미 히사시) 이사장
특정비영리 활동 법인 Friends of IFA Japan

1. Global Aging과 도시화

세계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전 세계인구 중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2006년 11%에서 2050년에는 22%로 늘어날 것이다. 이때 고령자 인구는 인류 역사 이래 최초로 연소인구(0-14세)를 초월하게 된다. 역시 도시인구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주민 1,000만 명이 넘는 대도시가 20세기 들어 2개에서 20개로 10배나 증가했다.

2. 秋田시의 고령화 및 Age Friendly City 구상 도출

秋田시의 2010년 인구는 324,377명이었다. 그 중 연소인구(0-14세)가 39,945명(12.31%), 생산연령 인구(15-64세)가 206,528명(63.67%), 고령자 인구(65세 이상)가 77,904명(24.02%)으로 초고령사회가 되었다. 이에 따라 “Age Friendly City 구상”에 관심을 갖고 Global Network에 참여하였다. 2009년 10월 9-10일 양일간 秋田시에서 IFA와 FOIFA(NPO 법인 Friends of IFA Japan)가 “Aging in Place & Age Friendly Cities”를 주제로 합동 국제포럼을 개최했을 때 처음으로 Age Friendly City의 개념이 秋田시민들에게 소개되었다. 그리고 2009년 4월 秋田시 시장선거에서 Age Friendly City를 공약으로 한 “호즈미 모토무”가 시장으로 당선되어 시의 정책으로 이를 진행하게 되었다.

3. 고령자가 살기 좋은 도시에 관한 영역

2007년 10월 1일 WHO는 고령자가 살기 좋은 도시의 특징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에 포괄적으로 8개 영역을 선정해 소개했는데, 이들은 다음과 같다.

1) 옥외 공간과 건물 (Outdoor spaces and build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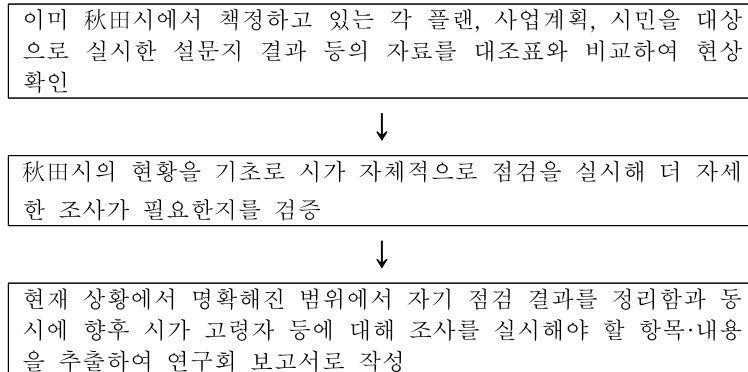
- | | |
|--------------|---------------|
| 기분 좋고 청결한 환경 | 녹지의 중요성 |
| 휴식 장소 | 고령자가 걷기 편한 보도 |
| 안전한 횡단보도 | 접근성 |
| 안전한 환경 | 보행로와 자전거 전용도로 |
| 고령자에게 편한 건물 | 충분한 공중화장실 |
| 고령의 손님(高齡客) | |
- 2) 교통기관 (Transportation)
- | | |
|------------------|------------|
| 이용 가능성 | 적당한 운임 |
| 신뢰성과 운행 횟수 | 목적지 |
| 고령자가 타기 쉬운 운송 수단 | 고령자 전용 서비스 |
| 노인우대좌석과 승객들의 친절 | 교통기관의 운전기사 |
| 안전성과 쾌적성 | 정류소와 역 |
| 택시 | 지역 교통 |
| 정보 | 운전 상황 |
| 고령자에 대한 친절 | 주차 |
- 3) 주거 (Housing)
- | | |
|--------------|-------------|
| 적절한 가격 | 공익사업 서비스 |
| 설계 | 개축(改築) |
| 보수 | 서비스 이용의 편리성 |
| 지역사회와 가족의 연계 | 주택의 선택 사항 |
| 주거환경 | |
- 4) 사회참가 (Social participation)
- | | |
|----------------------|----------------|
| 기회를 이용하기 쉬움 | 활동하기 적당한 가격 |
| 기회의 범위 | 활동/이벤트의 주지(周知) |
| 다양한 세대, 문화, 지역사회의 통합 | 참가 촉진과 고립화 대책 |
- 5) 존경과 사회적 포용 (Respect and social inclusion)
- | | |
|------------------|-------------|
| 예의 바른 행동과 무례한 행동 | 노인 차별과 무지 |
| 세대 간 교류와 공교육 | 지역사회서의 위치 |
| 지역사회에 의한 지원 | 가족에 있어서의 위치 |
| 경제적 배제 | |
- 6) 시민참가와 고용 (Civic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 | | |
|-------------------------|------------|
| 고령자가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 |
| 고용 선택사항의 개선과 기회의 증가 | |
| 고령노동자나 자원봉사를 받아들이는 유연성 | |
| 시민참가 촉진 | 트레이닝 |
| 기업의 기회 | 고령자 공헌의 평가 |
- 7)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 | | |
|-------------------|---------|
|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정보 제공 | 광범위한 유통 |
|-------------------|---------|

- 고령자가 알기 쉬운 서식과 디자인 누군가 말을 건네줄까?
 정보 기술: 장점과 단점 개인과 집단의 책임
- 8) 지역사회의 지원과 보건 서비스
 (Community support and health services)
- 이용하기 쉬운 케어 폭넓은 보건 서비스
 “건강한 노화” 서비스 재가요양 서비스
 자택에서 살 수 없는 사람을 위한 거주 시설
 사회봉사 네트워크 자원봉사 부족
 그 외의 문제

4. 秋田市の “Age Friendly City 구상” 실행을 위한 활동

“Age Friendly City 구상”의 8개의 영역을 이해할 수 있도록 2009년 10월 시청 내 관계 부서의 직원들로 이뤄진 “Age Friendly City 구상 연구회”를 시작했다. 이 연구회는 2010년 3월까지 8회 개최되어 구체적으로 아래의 3개 항목을 검토했다.

- 1) Age Friendly City의 실현을 위해 먼저 秋田市の 현상과 과제에 대한 확인 작업을 실시
- 2) 확인 작업 실시 전 WHO의 대조표를 활용한 東京都 港(미나토)구(區)의 조사를 통해 분명한 과제를 참조하여, 기존의 조사 결과나 자료로부터 대조표 해당 항목내용을 명확화
- 3) 앞의 두 항목을 근거로 연구회에서 다음과 같은 대조표 검증을 실시



이와 동시에 시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고 또 시민의 소리를 구상에 반영하기 위해 “秋田市 Age Friendly City 구상 추진협의회”를 설립했다. 이 추진 협의회는 2010년 7월과 10월, 2011년 3월에 회의를 개

최하여 秋田시가 실시한 설문지 조사와 면접 조사 결과와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과 과제를 확인하고 논의된 의견들을 정리한 “秋田시에 대한 제언서”를 2011년 6월 6일 시장에게 제출했다.

이 제언서의 기본 자료는 WHO의 8개 영역 전반에 대한 의견이었다. 이를 기초로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지 조사는 秋田시민 3천명 (65세 이상의 고령자 1,500명, 20-64세의 시민 1,000명, 20-64세의 신체장애자 500명)을 대상으로 우편에 의한 무기명 설문지 방식으로 실시했다. 기간은 2010년 7월 7일부터 30일까지로 회답 수는 2,067건, 응답율은 68.9%였다. 또한 면접 조사는 2010년 7월 21일부터 8월 23일까지 18명의 그룹에 대한 면담과 “시장과의 대화”에 참석한 시민과의 의견을 교환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실시 횟수는 18회, 참가인원은 149명이었다.

“秋田시에 대한 제언서”의 내용이자, 8개 영역에 대해 향후 秋田시가 진행해야 하는 구체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괄호 안에 표시했다.

1) 옥외 공간과 건물 (휴식장소, 벤치, 모두가 설 수 있는 푸른 공간 등이 있는 옥외 환경 정비; 고령 운전자의 사고 예방 대책; barrier-free의 적극적 추진; 물건 구입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과 새로운 비즈니스의 지원; 슈퍼마켓이나 상점, 의료 시설 등 집약시설정비 지원; 시민협동으로 폭설에 대한 꼼꼼한 대책)

2) 교통기관 (고령자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이동수단 확보; 고령자의 요구에 맞는 교통수단의 운행 지원; 버스사업 외의 이동 수단에 대해 검토 및 지원)

3) 주거 (가족 형태의 변화에 따른 주거 확보; 고령자나 장애인이 살기 좋은 집합주택 검토)

4) 사회참여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촉진; 고령자가 모일 수 있는 장소 만들기; 고립이나 우울증 예방, 자살 방지 대책; 각 세대가 함께 활동하는 장 만들기; ‘町内會’에 대한 섬세한 지원)

5) 존경과 사회적 포용 (고령자의 이미지, 이해에 대한 개혁; 각 세대가 함께 활동하는 장 만들기)

6) 시민참가와 고용 (고령자 자원봉사활동 촉진; 고령자일터 확보)

7)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다양한 정보기기를 통한 고령자 정보발신 촉진; 요양·복지 상담창구 정보의 철저한 제공; 고령자 관련 시민을 위한 정보에 만전)

8) 지역사회의 지원과 보건 서비스 (익숙한 지역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편리한 의료, 보건, 복지 서비스의 충실; 지역 등의 고령자 안
부확인 대책)

“秋田시에 대한 제언서”에는 1) 고령자와 고령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
미지를 없애고 긍정적인 이미지 만들기, 2) barrier-free 촉진, 3) 교통수단 확
보, 4) 고령자의 고립 방지의 4가지 중점 과제가 강조되어 있다. 이 제언
서를 근거로 秋田시는 2012년도의 추진 진행표를 작성했다. 이에 따르
면, 2011년 7월 21일에 제4회 구상 추진 협의회를 개최한 후, 2개월에
1회 정도 회의를 진행하며 내년 3월까지 모두 3회 개최한다. 9월 24일
에 秋田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秋田시 Age Friendly City Forum”
을 개최한다. 그 외 구체적 행동은 아래와 같다.

- 1) 고령자 동전 (coin) 버스 사업 실시
- 2) 도움이 필요한 경증 대상자에 대한 기록정비 사업 시행
- 3) 요양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 제도의 실시 (고령자 자원
봉사 활동 실적에 따라 point 지원, 그 point를 현금으로 환전시켜주는 제도)
- 4) 글자를 크게 표기한 “만남 안심 게시판”을 제작, 약 60세 이상 고령자
를 대상으로 정보 제공
- 5) 제6차 秋田시 종합 도시계획(2011년 3월 원안완성), 秋田시 barrier free
기본 구상에 “Age Friendly City의 실현”을 위한 활동과 연계를 새롭게 개제

향후 “Age Friendly City 구상” 진행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 1) Age Friendly City는 단지 시설적인 정비나 신규 사업 등의 진행뿐만
아니라 참가자 개개인이 이념을 확실하게 공유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에게 널
리 확산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 2) 공공 교통기관의 정비, 거주 환경 정비, 사회참가나 고용 기회 창출 등,
다양한 분야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청 내에 횡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 3) 새로운 종합 계획에 있어 성장 전략은 포함되어 있지만 행정 예산에도
한계가 있다.

5. 고찰

범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런 현상이
주로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가 살기 편한 도시 만들
기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러 도시들은 각각 역사나

문화, 지리적 배경이 다르고 다양하다. 따라서 고령화 대책은 각각의 도시나 지역에 알맞은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 진행된 “Age Friendly City” 정책이나 방법론은 그것의 성패와 상관없이 좋은 선례가 되고 있다.

2007년 WHO가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를 발표한 지 약 4년이 지났다. 그리고 각각의 도시가 이 가이드라인의 대조표를 참고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Age Friendly City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는 각 도시의 개별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든 도시가 Age Friendly City가 되도록 노력과 성과를 결집해야 한다. 이번에 WHO가 Global Network를 조직하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에 찬성한 도시나 지역의 대표들이 2011년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Ireland의 Dublin에서 개최된 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ge Friendly Cities(Building The WHO Global Network)에 참석해 이 네트워크에 참가를 표명한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다.

현재 세계의 약 500개 도시 및 지역이 이 네트워크에 속해 있으며, 향후 정기적으로 국제회의를 개최해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교환이나 인적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고안되고 실천된 인류의 지혜가 서로 깊게 논의되어 한층 더 발전해 나갈 것이다. “Age Friendly City 구상”은 인류가 21세기 초고령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고 협력하여 실시해야만 한다.

<주제발표 2>

일본 농촌 지역에 있어서의 고령 친화 지역 건설의 경험과 현상

小川全夫 (오가와 타케오)

쿠마모토학원대학 교수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 재건을 위해 전후의 베이비붐

기간을 3년으로 줄였다. 이는 풍요롭게 살기 위해 인구 구성 비율을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이렇듯 일본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기 위해 인구구조를 잘 이용했다는 의미에서 인구보너스를 누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양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보면, 대략 1995년을 전후로 보너스는 끝이 났고, 다시 부양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인구가 고령화되어 경제발전에 마이너스가 되는 인구구조로 돌아서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본은 향후 WHO가 제안한 Active Aging이라는 정책 기조를 세계 어느 나라보다 진지하게 추진해야 한다. 일본에서 Active Aging은 일반적으로 “평생 현역 사회 만들기”라고 불린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사람들은 삶의 보람, 사회 참여,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게 된다. 평생 현역이라는 것은 이러한 “인생의 의미”를 모색하는 고령자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 언제나 자신의 역할이 있다는 이념이다.

“장수” 측면에서 보면, 일본에는 100세 이상의 장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인구조사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홀로 또는 가족 등과 함께 일반 주택에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복지 시설이나 요양 병원 등에 살고 있는지를 보면, 100세 이상 고령자의 절반은 후자의 시설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 속에서 앞으로를 장수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WHO나 다양한 기관들은 단지 평균수명 연장이 목표가 아니라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기 위해 “건강 수명”이라는 개념을 구축하고 있다.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면 평생 현역으로 활약할 수 있는 고령자가 많아질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사회적 대응에 문제가 있는 실패라고 할 수 있다. 평생 현역의 지표 중 하나는 고령자의 취업률이다. 계속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고령자는 많다. 이는 “삶의 보람인 노동”이나 “평생 현역”으로 이해되고 있어 비록 연금제도가 보급되어도 인간이란 계속해서 일하고 싶어 하는 존재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다.

일본 전체 인구가 고령화 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젊은 인구가 도시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농촌 문제가 시급하다. 1970년은 인구 감소율이 높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정·촌을 지원하기 위한 과소

지역 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지역 격차를 줄이는 시책이 전개되었다. 과소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먼저 인구 고령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30년 뒤의 일본 전체의 인구 상황을 보여주는 지역도 나타났다. 이렇듯 일본의 과소 고령지역 사례는 앞으로 고령사회가 진행될 동아시아 전체가 취해야 할 적절한 대응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WHO는 도시화와 고령화가 향후 큰 과제라고 인식하여 Age-Friendly City라는 개념을 제시하여 강조하고 있지만, 농촌의 경우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적극적인 입장에서 일본의 농촌의 대처를 잘 관찰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1. 야마구치(山口)현 슈오오시마초(周防大島町) 소개

이 지역은 Age-Friendly Community를 고령자 모델 거주권 구상이라는 지역계획을 실시한 경험이 있었다. 당시 이 지역은 4개의 작은 마을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중 토와마치는 주민의 반수가 65세 이상으로 고령화가 일찍부터 진행되어 있었고, 다른 마을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주민들의 전통적인 생활양태가 고령화의 원인 중 하나인데,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벼농사가 적합하지 않아 돈을 벌기 위해 타지로 떠나는 양태를 보였다. 젊은 사람은 일자리가 있는 도시로 이주하였고, 남은 사람들은 굴 농사와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큰 특징으로 도시로 일하러 나갔던 사람들이 퇴직 후엔 섬으로 귀향하여 조상 대대로 살던 주택에서 생활하며 농업이나 어업을 시작하거나 연금생활, 자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양태가 정착된 것이 고령화를 재촉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이 지역의 4개 마을과 山口현이 공동으로 “周防大島町 고령자모델 거주권 구상”을 실시하게 되었다.

-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실시 (목표 2010년)
- 오시마초(大島町), 쿠가초(久賀町), 타치마나초(橋町), 토와초(東和町) + 야마구치현(山口縣)
- “건강, 싱글병글, 안심할 수 있는 섬 만들기”라는 기치아래 주민활성화 및 사회 환경 조성
- 건강노인, 허약노인, 요양이 필요한 고령자 모두를 위해 각종실험 실시
건강노인: 3세대 간 교류사업, 타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사업, 현지 자원 활용을 통한 고령자 일자리 만들기 사업, 섬 만들기 페스티벌, 고령사회 체험,

펜클럽 육성, 빈집 활용 대책

허약노인: 물품구입 대행 정보통신 시스템 도입, 고령자 안부 확인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 사업, 생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버스 노선 개선, 지역 화폐의 시험도입

요양노인: 개호보험제도의 원활한 도입 추진에 중점. 치매 고령자를 찾기 위해 GPS이용, 24시간 대응 요양보호사 파견, 원격 의료 추진, 양로원에서 음악치료. 인정심사회 모임을 위한 인트라넷 구축 (ICT이용 화상회의)

- 합병 후 “周防大島町”의 새로운 마을 계획으로 전환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의 자주적인 활동으로 뿌리 내린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산품을 이용해 고령자가 삶의 보람을 느끼는 직장 만들기

둘째, 노는 농지를 활용한 도시 주민과의 교류 장소 만들기

셋째, 지역 화폐를 이용해 상부상조하는 지역 만들기

넷째, 홀라춤을 통한 건강 가꾸기

다섯째, 근로자 자원봉사 활동의 정착주민의 섬 만들기 활동

또 周防大島町の 사례가 다른 지역에 미친 파급 효과들은 ① 음악을 활용한 요법의 보급, ② GPS를 이용하여 배회 고령자 찾기, ③ 독거 고령자 생활 모니터링, ④ 고령자가 보람을 느끼는 직장 만들기 등이다. 역시 슈오오시마초에 정착된 행정 통상 업무들은 ① 섬 만들기 에 관한 정보 발신, ② 건축업자와 연계하여 빈 집 활용, ③ 합리적인 개호보험 관리 운용 등이다.

2. 山口현에서의 활동

周防大島町の 실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山口현 방식의 “평생 현역 사회 만들기”를 지역 정책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첫째, 산업계에서는 취업 기회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평생현역 사회 만들기 추진

둘째, 평생 현역 사회 만들기 학회: 대학 소속 연구자, 지역 지도자 연구조사 및 정책 제언을 실시

셋째, 평생 현역 추진 센터: 공공기관·비영리 민간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과 협력 지역 주민과의 상담 내용에 근거한 지원을 위해 센터

넷째, 건강 증진을 도모

다섯째, 지역 활성화: 고령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독려 베이비붐 세대의 지역 참가 장려 등이 채택되었다.

현재 이러한 체제로 山口현에 거주하는 고령자는 “Older Person with Active Lifestyle (OPAL)”라는 프로젝트에 자주적으로 사업 계획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채택된 프로젝트에는 현이 활동 교부금을 지원한다.

이러한 활동은 농촌의 Age-Friendly Community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山口현 농가의 실정은 매우 심각하다. 즉 세대수가 적고, 주민 연령층이 뚜렷하게 고령화 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소규모 고령화 취약”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GIS (지리 정보 시스템)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산간지역 중 12.8%는 세대수가 19호 이하, 65세 이상 인구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향후 농촌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주민 스스로가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한다. 최근 이러한 지역에 마을지원 담당자를 파견하여 주민과 함께 지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기관에 지원을 요청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소규모 고령화 집단의 지속재생 가능한 계획은 첫째, 안전한 생활: 방재, 위험한 곳 점검 (생활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 둘째, 즐거운 삶: 지역의 통합을 꾀할 수 있는 즐거운 활동 (ex. 이벤트, 지역행사, 전통 행사 등), 셋째, 안심할 수 있는 삶: 지역복지, 소통운동, 회식을 통한 주민친선 도모 (상부상조), 넷째, 풍부한 삶: 커뮤니티·비즈니스 전개 (아침시장, 관광산업 추진, 농지주인제도, 특산물 가공·판매, 지역복지활동의 전개, 이역주민이 상점을 경영하는 등), 다섯째, 자긍심 있는 삶: 교통 활동을 통한 지역 장점 재발견, 자발적인 지역 개선 활동 정착이었다.

이러한 마을의 존속과 재생을 위해 가능성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향후 새로운 고령화 진행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지리적으로 분산된 생활을 재검토해야 한다. 앞으로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지원 담당자의 주민자치 지원: 마을 지원 담당자를 파견하여 주민과 함께 마을에 대한 계획 수립 및 행정기관에 지원 요청 활동 전개. 이때 마을지원 담당자는 주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의견을 조정하는 중재자임

둘째, 생활교통의 해결: 통학버스를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이용하는 “혼승”방식, 회원제 디맨드 버스나 디맨드 택시 운행,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 운송 서비스 등 여러 가지 시범사업 실시

셋째, 마을 이전 vs 존속과 재생을 위한 갈림길: 마을에 남기 원하는 사람을 위한 방문형 서비스 제공, 이전하기로 결심한 사람을 위한 이전 지역에서 생활지원 등을 다양하게 검토

넷째, 남은 재산관리와 새로운 이익: 재산의 사유권이나 전통적인 권리보다 이용권을 우선시하는 법적 변화 도모

다섯째, 지역 화폐·현물 교환에 의한 “또 하나의” 경제 확립: 고령자의 생활 보호를 위해 지역 화폐를 한정된 지역에서 사용, 경제 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면 현물 교환이 다양해져 급변하는 세계경제 속에서도 기본적인 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여섯째, 새로운 사회적 자본 조성: 고령자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그것을 연구자가 조사하여 정책을 제언함. 이것을 행정기관이 사회 정책으로, 기업은 지역공헌 활동으로 되돌리는 산학공 협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회적 자본 구성

<질의응답>

1. 일본 도·농복합도시의 고령친화도시(아키타)에 대한 토론(발표자: 호즈미)

윤가현: 秋田시 고령친화도시 구성위원회가 총 9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도시(지역) 규모에 따라 유동적이겠지만 다른 시나 나라에서는 구성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 사람들은 자원봉사 또는 유급으로 일을 하는지, 또한 위원회의 역할 범위가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다.

호즈미: 저에게 秋田시 구성위원회에 관한 정보는 없다. 모두 자원봉사로 일하고 있다. 시장에 대한 제언을 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실행기관이 아니다. 시의 각종 조사나 요망사항 등을 기본으로 시에 조언

이나 제언을 한다.

조유향: 秋田시 시청에서 의료분야 케어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정비를 하는지 그리고 秋田시에서 정의하는 의료이용의 편리함이란 무엇인가?

호즈미: 일본에는 의료보험과 개호보험이 있다. 개호보험에서 지역 포괄 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케어플랜을 작성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기본으로 지역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연식: 고령친화도시 활성화 추진을 위한 설문지 조사내용에서 교통과 관련된 내용 중 과거 통행실태 내용이 포함되었는가? 예를 들면, 운전 가능한 고령자의 비율, 고령자들의 목적, 목적지, 통행 빈도 등이 포함되어 조사된 후에 그런 정책들이 시도된 것인지 궁금하다.

호즈미: 그 정도로 구체적인 것은 조사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조사라기보다는 고령친화도시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조사했다. 주민의 교통에 관한 요망을 취합했다.

임경수: 주택 주거문제와 관련하여 고령자들이 살 수 있는 집합주택을 검토했다고 했는데, 집합주택의 주거 형태가 아파트, 단독 주택 등 기타 주택의 특성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해주길 바란다.

호즈미: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노인복지관련 주거시설 등 다양하다. 이러한 주거가 중학교 행정구역 정도를 기준으로 적당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다기능 서비스가 정비되어 한 사업소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일본농촌의 고령친화도시(山口)에 대한 토론

윤가현: 周防大島町の 실천 중에서 지역협력 주민 살롱 활동의 개념을 다시 설명해주길 바란다. 周防大島町에서 오시마초, 쿠가초, 타치바나초, 토와초 야마구치현의 합병과 관련하여 행정구역이 합병될 때 어느 정도 자발적이었는가? 정부 지원이나 규제와 같은 과정을 설명해주길 바란다.

오가와: 당시 일본에서는 시정촌 합병이 유행하고 있어서 이 지역 합병은 순조로웠다. 또 개호보험 개시되면서 개호보험의 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임경수: 귀농 인구가 100명이었다면, 성인 가구의 100명인가, 아니면 귀농한 사람이 100명인가? 예를 들면, 귀농인구 100명에서의 1명이 가족을 구성하여 부부나 아이를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와 아이를 포함하지 않고 그 인원을 개별적으로 집계한 것인지? 지역 화폐 “논다”와 일본 엔화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만약 지역화폐가 귀농인구가 가족 구성을 하고 아이들이 자원봉사를 했다면, 논다를 엔화로 바꿔주면서 지역전체를 활성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오가와: 귀농인구 100명은 귀농한 개개인을 의미한다. 지역화폐는 고령자와 아동 간의 자원봉사에서 사용되고 있다. 고령자에게 인기가 있는 것은 외부 이동 부분이다. 이웃의 자가용을 지역화폐를 이용해 사용한다. 그러나 지역화폐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택시회사의 경영도 어려워진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서로의 구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발전시켜야 한다. 서로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화폐도 같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상철: 평생 현역 산·학·공 추진 협의회에 대해서 3가지 질문이 있다. 산학공 추진협회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분으로 구성이 되어야하는데 어떻게 구성했는지 궁금하다. 산학공 추진협회가 어느 정도 협력시스템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추진협의회 자체를 강화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 어떠한 전략 또는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성과 부분인데, 주로 초점을 창업 쪽으로 맞추는지 취업 쪽으로 맞추는지 궁금하고, 노인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어떠한 직종으로 창업 또는 취업의 초점을 맞추는지도 궁금하다.

오가와: 이 협의회는 기본적으로 각 단체의 톱 리더가 참가한다. 그러나 이 협의회가 山口현 전체의 평생현역 사회 만들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는 학회에서 현재 문제를 조사했고, 이 결과를 중심으로 현에 여러 가지를 제안했다. 예를 들면, 회사를 퇴직한 분들의 사회참가를 돕는 초기교육을 제안했고, 현의 도움을 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山口현에서는 청년실업 문제도 있어 새롭게 취직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시점을 바꾸어 취

업만이 아닌 사회참가를 추진하고 있다. 고령자가 스스로 사회참가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 학회가 심사하고 현이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여 평생현역 사회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다.

<지정토론>

엄기욱: 오가와 다케오 교수가 소개한 일본 과소지역 상황은 우리 농촌지역과 유사하다. 周防大島町の 고령자 모델 거주권 구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차원의 중장기계획 수립과 실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도시 중심의 개발과 집중화 이면에 남겨진 소(少)지역사회에 대한 통합적 차원의 정주여건으로서 Age-Friendly Community 구축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노인에 대한 존중 및 배려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각종 행사나 프로그램에서 고령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의료나 편의 시설에 비해 노인복지시설 이용의 용이성 등이 낮기 때문이다. 둘째, 세대통합과 가족 간 상호작용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도시화, 핵가족화 등에 따라 조부모 및 손자녀와의 접촉 및 교류빈도가 축소되고 있으며, 세대 간의 교류 기회 부족으로 노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 사회적 부양의식과 책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세대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과 참여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젊고 건강한 노인들이 그들의 신체적, 심리적 조건에 적합한 일자리에서 배제되어 있는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능동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노인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편견 제거를 통한 대중적 이미지를 제고해야 한다. 대중매체는 고령사회, 장수사회, 노인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와 보도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경청해야 한다. 다섯째, 연령차별주의(ageism) 해소를 위한 다양한 공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교육 과정을 통해 노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이루어지고, 세대 간 교류

와 더 나아가 젊은 세대를 위한 기여와 공헌을 할 수 있는 기회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 존중과 배려에 대한 첨언으로 사람이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은 특정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 사회적 상호작용 등을 포함해서 사회적, 개인적인 차원의 욕구가 채워져야 가능해진다.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배려 차원에 행복의 기본 틀을 두고서 주거, 교통, 보건 등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현재 한국에서는 지역 내 자원만을 사용하여 이용자를 만족시키는 서비스는 어렵다. 그래서 복지관에서도 다양한 외부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에 노력해야 한다.

정연식: 보행은 인간의 기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주요 사항이므로 고령친화도시 건설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교통수단이 활용되지 못할 경우 보행 수단이 매우 중요하다. 복지시설이나 노인병원 등이 구축되어도 노인 보행이 어려워진다면 소용없다. 고령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운전 가능한 고령자와 그렇지 않은 고령자의 비율에 맞추는 정책 추진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운전 가능한 자의 비율이 높을 때는 운전자가 운전을 못하는 고령자에 대하여 Car Pool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으며, 보행자보다 운전자를 위주로 한 도시 시설물에 대한 정책도 펼 수 있다. 반대로 운전이 불가능한 운전자가 많을 경우 보행자의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요대응형 대중교통(DRT)’을 운영하고 교통시설물을 보행자 위주로 설비해야 한다. 그리고 보행자를 위한 저상버스 등도 운영해야 한다.

국내 환경에 비추어 볼 때 농어촌을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분들에게는 지하철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런 정책이 또한 농어촌에서도 시행되어야 한다. 고령자의 보행권 보장을 위해 일정액의 버스카드 충전 방식도 좋을 것 같다. 지역 특징에 따라 일반 대중교통이나 콜택시 활용 등을 통해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어촌에서 이런 정책을 시행할 경우 역시 사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고령자의 통행 특성(목적이나 빈도, 목적지 등)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영태: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정책에 두 가지가 있었다. 2005년의

보건복지에서 시도한 복지단지가 있었고, 2007년에 시도했던 고령친화 모델 지역이 있었다. 복합노인복지단지는 전국 4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진행했는데, 현재는 충남 서천군만 진행되고 있다. 복합노인복지단지는 노인들이 주거, 건강, 여가, 복지, 체육을 같이 할 수 있는 단지 형태로 만들었다. 최근에는 다른 시설이 완비되고 2011년 말에는 주거만 완공될 예정이다. 현재 요양시설이나 병원시설들이 운영되고 있다. 고령친화모델 프로젝트에서도 4개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했는데, 오늘날의 개념에 맞는 '복지서비스, 생활서비스, 주거교통에 관련한 물리적 인프라 복지, 일자리, 사회참여 확대와 같은 모든 분야에 대하여 모범지역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모델지역을 지정했다. 2006년부터 시작하여 정책을 발굴하였고 2011년에는 이것이 실현되어 어느 정도 성과를 얻게 되었다.

일본의 사례와 한국의 모델지역을 비교해보니, 우리는 신규로 만들어진 물리적시설이나 프로그램들을 많이 발굴했지만, 일본에서의 개념적 이해, 즉 모든 지역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해의 측면에서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 모니터링 해보았을 때 가장 반성되는 점이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이것에 대해서 서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여기까지 한국의 정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질문을 하나 하면, 일본이나 우리나라 농촌지역에서 노인인구가 30%가 넘는 초고령화 지역이 있다. 우리나라 농촌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도 극히 제한되어 있다.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예산의 절반 정도가 노인복지에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도 여러 복지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을 텐데, 이런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자원봉사자 뿐 아니라 필연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오가와: 일본농촌의 자립도는 20%정도이다. 다른 부분은 국가의 지원에 의존한다. 또한 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가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지방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 채권의 70%는 국가가 보전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원을 기반으로 지방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예산은 복지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부문의 재원으로 사

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인분야에 소요되는 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추용: 오가와 교수의 발표에서 일본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도 “평생현역”이라는 생각으로 계속 일을 하려는 열의를 갖고 있다는 점과 그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 일자리 창출의 하나로 밀감을 생산하는 것은 판매와 관리 농업기술적인 면에서 매우 좋은 업종을 선정한 것 같다. 또 지역화폐에 대하여 포인트를 주고 가맹점에서 할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다. 그렇다면 山口현에서 사용하는 지역화폐는 어떤 것인지,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사용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는지, 개선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 귀농인구와 관련하여 ‘잠자리회’에 대하여 조직위원이 몇 명이며, 현황이 어떻게 되며, 편성예산 규모와 구체적인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호즈미 이사장의 발표에 의하면, 매우 다양하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부분에서 완성도가 높은 고령친화도시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 추진방법, 예산편성, 추진 주체에 대한 언급이 약간 부족한 것 같다. 큰 틀에서의 설명을 부탁한다. 고령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와 관련하여 어떤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또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 면에 있어서 그 일자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다.

호즈미: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관해서 秋田시에는 각 지역의 자원봉사협의회가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 등에서의 요청이 있으면 요청에 맞는 자원봉사자를 파견하고 있다. 일본에는 실버인재센터가 있어 고령자전용의 센터가 있어 취업 등을 알선하고 있다. 지역의 회사나 개인 등의 요망이 있을 경우 실버인재센터에 등록된 회원 가운데 가능한 분을 소개하여 파견하고 있다.

오가와: 지역통화는 소규모 지역에서만 이용되고 있다. 약 3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시간을 기본으로 티켓을 사용하며, 시장과는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다. 일부 시장과의 교환성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엔과의 관계가 해결과제이다.

박영란: 두 지역 사례의 고령친화도시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시사

점은 결과처럼 과정도 중요하다는 점이다. 두 지역 모두 전문가, 지역 주민, 공무원 등이 협력하여 지역을 바꾸어나간 이야기는 감동이었으며, 이는 끝이 없는 새로운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양쪽 지역의 지표를 살펴봤을 때 고령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것 같다.

특히 秋田시에서는 ‘광범위한 유통,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정보 제공, 누가 말을 건네줄까? 고령자가 알기 쉬운 서식과 디자인 정보기술 활용’이라는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한 관심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周防大島町 등은 인트라넷을 이용한 요양심사, 쇼핑대행 정보통신 시스템 도입 화상전화를 이용한 전자 안부 확인 등은 IT를 최대한 활용하여 농촌에서 정보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의 중요성, 특히 노후생활과 관련된 정보는 콘텐츠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노후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주거, 교통, 일자리, 건강 분류 모든 분야의 다양한 정보들이 존재하더라도 이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더 매우 중요하므로 사회구성원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최근 서울시의 조사 결과를 보면, 고령자들이 대중매체(TV, 신문) 등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통해 정보를 많이 얻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직접 사람이 정보를 제공해주기를 바라는 대면 의사소통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다. 이는 쉽지 않겠지만 대응해야 할 과제이다.

의사결정과정에서 고령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WHO 지표에 적혀 있는데, 고령친화도시 건설 과정에서는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것 같고,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리더십을 가진 집단이 누구인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개념들을 이해하고 우리의 프로젝트라는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는데, 이것이 한국사회에서 발생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많다. 일본에서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경험들이 있어서 한국보다는 더 잘 안착되지 않았을까 싶다. 또 서구와는 다른 측면으로 여전히 노인 당사자의 참여가 얼마나 있나요? 이러한 부분이 지역의 유지라던가 어느 정도 경륜이 있는 분들로 구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지역주민들이 이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

는지 궁금하다. 또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이었는가? 그와 관련하여 중장기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가져가려고 하는지, 어떤 로드맵이 있고 연도별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호즈미: 秋田시의 경우 고령친화도시 건설을 위한 리더십은 역시 시장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장선거에서 고령친화도시건설을 하나의 정책으로 시민에게 제시했다. 그리고 당선이 되었다. 따라서 시민과의 약속이므로 꼭 지켜야하고 그 주역은 시장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은 너무 큰 도시다. 따라서 좀 작은 단위로 나누어 각 지역에서 리더가 나와서 진행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시민 한명 한명의 의견을 들으며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 각 지역의 대표들의 의견을 들어 진행하는 형태가 실질적이다. 秋田시도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마을단위의 이야기장을 마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있다. 재정문제이지만, 秋田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고령친화도시추진만을 위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각 분야의 담당자와 전문가가 다양한 정책추진에 있어 고령친화를 생각하며 정책을 입안하려고 하고 있다.

오가와: 周防大島町에는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다. 이 활동을 하나로 만들자 또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자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다만 현 당국의 이해와 협력은 큰 힘이 되었다. 재정적으로 현에서 특별예산을 편성해주어 마을의 재원이 들어갔어도 사업추진에 큰 도움이 되었다. 지금부터는 일본 모든 지역에서 진행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스템은 의료, 보건, 복지 서비스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하게 되어있다.

조유향: 국내에도 노인건강증진사업이라는 노인보건사업을 각 보건소에서 실시했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모든 사람의 관심을 받다가 이제 2011년 고령친화도시라는 개념에서 8개 항목으로 나누어지면서 다시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구축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지리적으로 분산된 생활이라던가, 부족한 자원 등을 감안할 때 고령친화도시는 농촌부터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발표의 周防大島町은 섬지역이어서 다른 지역보다는 보건의료 시스템이 열악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발표에서 합병위에 새로운 마을 계획이라는 언급이 있었다. 기존에 보건의료제도의 어떤 현황에서 새로운 마을 계획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어떻게 고령친화도시로 갔는지 알고 싶다. 우리나라 고령자와 그 가족들은 요양보호사가 필요할 때 수시로 와서 서비스를 해줬으면 하고 원한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 요양보호사들은 3-4시간밖에 와줄 수 없는 환경이다. 周防大島町에서는 24시간 대응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니 어떤 시스템으로 제공하는지 궁금하다. 지역보건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자원과 보건서비스에서 8가지 항목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중 특히 이용이 쉬운 케어, 폭넓은 보건서비스와 건강한 노화 서비스는 무엇인지 알고 싶다.

오가와: 일본에서는 개호보험제도가 매우 큰 역할을 했다. 개호보험은 노인보건복과 노인복지법이 합쳐진 것과 같다. 그리고 제도 안에 케어 매니저를 만든 것이 매우 큰 역할을 했다. 케어 매니저가 케어플랜을 작성하므로 이용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지역포괄센터에서 개호예방에 대한 플랜을 작성하여 지역의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민간의 병원들도 지역보건을 위해 이용자와 환자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임경수: 고령친화도시 건설에서는 지역적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복합노인복지단지가 서천, 곡성, 영월, 진안 그리고 고령친화모델지역이 원주, 순창, 고요, 의성에 조성되었다. 이들은 원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농촌지역이다. 이것은 농촌지역에 고령화진행속도가 빠르고 고령자 인구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수요가 농촌지역에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면에서 향후 고령친화도시 건설에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향토자원과 정체성을 고려한 도시건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누구를 위한 고령친화도시 건설인지도 매우 중요하다. 즉 우리가 노인이라는 범주로만 이야기하지만 다양한 계층이 함께 살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취약한 계층과 부유한 계층이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데, 이런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가 노인의 다양한 계층을 다 맞출 수는 없다. 그렇다면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경계를 분명히 나눌 필요가 있다. 실제로 공공부분은 소위 주택을 노인주거단지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한다. 역시 각종 정부와 의료 정보라던가 노인과 자식, 사회와의 관계, 일자리 관계와 관련하여 통합적 도시건설이 되어야 한다.

호즈미: 먼저 누구를 위한 고령친화도시인가에 대해서는 고령자가 살기 좋은 도시는 모든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한다. 즉 시민 모두를 위한 도시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진행해야 모든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 秋田시에는 복지시설 등이 부족하다. 그러나 이런 시설은 시의 재정 상황과 연결되기 때문에 재가케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고소득자를 위한 노인시설이지만, 역시 고소득자의 소비가 지역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므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들을 위한 시설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가와: 농촌은 가난하지만 각자 자신의 집이 있다. 문제는 재가서비스가 얼마나 충실한가가 중요하다. 즉 재가서비스 시스템이 중요하다. 도시는 임대주택이 많다. 따라서 행정부분에서 다양한 시영주택과 공공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실버하우징 개념으로 고령자가 살기 좋은 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주택정책에 노인을 배려하고 케어를 필수적으로 함께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정책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자유토론>

최강수: 교통과 관련하여 곡성군은 매우 넓은 지역이다. 그러나 인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그래서 사실상 농민들에게 의료체계라든지 교통체계의 제공이 어렵다. 도서벽지의 교통문제는 중앙에서 국비 등으로 지정된 차량의 적자운영을 보충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서 차량문제는 없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어르신들의 방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구급차를 항시 대기시키고 있으며, 방문케어가 가능하도록 구청직원과 간호사, 사회복지 요원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조미경: 호즈미 선생님은 고령친화도시 건설은 모든 세대를 위한 것이며, 秋田시 경험에 비추어보면, 고령친화도시 개념의 공유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고령친화도시 건설에서 노인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함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상 중이나 실시 중인 전략이 있으면 간략한 설명을 부탁한다.

호즈미: Age Friendly City라는 영어식 명칭은 秋田시민, 고령자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이 용어에 시민이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각종 책자와 홍보물 등에 이 용어를 사용하여 시민들에게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각종 토론회와 세미나, 공연회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알리고 있다. 또한 자신들만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WHO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국제적인 관계자를 초청하여 공연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각종 언론과 매체를 통하여 국제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선전할 예정이다. 역시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얻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윤가현: 고령친화도시를 건설할 때 전제가 되는 것은 지역주민의 의식이 얼마나 향상되어 있고 시민들이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함께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다.

전해왕: 교통에 대한 다양한 정책개발이 요구된다. 충북 제천시에서 실시했던 장애인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대책 수요조사처럼 외출 목적이나 수단, 운전가능 여부, 교통 인프라는 어디에 더 필요한가, 교통 서비스가 개발돼야 하는 분야가 무엇인가, 외출 시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지 궁금하다. 실질적으로 운전 가능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철: 고령친화도시 건설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가 고령화 진행속도이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인구 1000만 명에 330만 명이 전체적인 노인세대로 포함되고, 노인이 많아지다 보면 실제로 도시 경쟁력 자체가 낮아질 수 있다. 하나의 대안이 고령친화도시라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8대 분야 중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고, 그 배경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

호즈미: 8개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고령자 고용”이라고 생각한다. 역시 고령자문제는 재정문제이다. 고령자는 젊은 사람들의 돈에서 연금을 받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가 가능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가와: 농촌의 교통문제를 조사한 적이 있었다. 농촌마을에 주민 50%가 운전할 수 있었으며, 그 이웃도 함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었다. 그러나 2/3가 운전을 못하게 되면 그 농촌마을은 생활하기 어려워짐을 알게 되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외출은 병원에 가는 것이다. 병원까지 1시간 이상이 걸리면 그 마을에 살기 어렵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후쿠오카시를 대상으로 active aging의 제안을 하고 있다. 도시의 디자인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하고 주민 모두가 쉽게 지역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역 만들기를 제안하고 있다.